

新羅 圓測法師의 止觀思想

吳 亨 根*

I. 緒 論

II. 圓測法師의 傳記

III. 心識說의 概要

IV. 心識과 肉體와의 關係

V. 瑜伽와 止觀의 大義

VI. 圓測法師의 止觀思想

VII. 結 論

I. 緒 論

佛敎에는 眞理를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學者들이 개발한 多樣的 理論이 있다. 그 가운데 한 部分을 차지하는 學說이 止觀思想이다. 止觀思想은 禪思想을 뜻하며 이는 印度에서 발달하여 中國에 전파되고 中國에서 結果를 맺었다고 할만큼 한 宗派를 이루었다. 學問的인 계통으로 살펴 보면 제일 먼저 印度의 禪思想은 原始佛敎에서 始作되며 이것이 小乘佛敎를 거쳐서 大乘佛敎 時代에 이르러 크게 발달하였다. 그런데 여러 大乘佛敎學 가운데서도 특히 瑜伽師地論 등 唯識學에 止觀思想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하여 唯識學을 止觀의 別名인 瑜伽思想이라고도 稱하며 止觀을 설명할 때 唯識學의 心識說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唯識學을 新羅의 高僧인 圓測法師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研究하여 많은 著述을 남겼다. 圓測法師는 특히 中國에서 名聲을 떨친 高僧으로서 現在 우리 社會에는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그리하여 本論에서는 法師의 傳記를 간단히 要略하여 소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많은 著述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解深密經疏 등을 통하여 法師의 止觀思想을 고찰하고자 한다. 法師의 止觀思想은 解深密經과 瑜伽師地論에 의하여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本論에서는 이들 經論을 가끔 引用하고자 한다. 그러나 圓測法師가 저술한 解深密經疏에는 그 밖의 많은 著述을 인용하여 방대한 理論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止觀思想의 量質이 너무나 많아서 주로 解深密經疏를 중심으로 本論을 쓸까 한다. 비록 敎學書이기는 하지만, 法師의 止觀思想은 매우 독특하고 理論적이어서 法師의 탁월한 心識說과 더불어 止觀思想을 考察해 보기로 한다.

* 東國大, 佛敎學專攻

II. 圓測法師의 傳記

圓測法師는 新羅의 王孫으로 탄생하였고 또한 어려서부터 머리가 매우 영특하여 어린 나이로 三歲⁽¹⁾에 出家하였다. 그는 또 少年의 나이인 十五歲에 唐나라에 유학하여 名聲을 떨친 唯識學者가 되었다. 처음에는 印度僧 眞諦三藏(499~569)이 印度로부터 傳來한 攝大乘論 등 이른바 舊唯識學을 전공하였다. 그에게 學問을 傳授한 學者는 僧辨法師(568~612)와 法常法師(567~645) 등이었다. 이들에 의하여 학문을 연구한 圓測法師는 眞諦三藏이 傳한 阿摩羅識思想 등 독특한 心識思想을 정립하기에 이르렀다. 그후 앞에서 말한 眞諦三藏의 唯識學과는 그 계통이 다른 新唯識學을 또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新唯識學은 中國의 玄奘法師가 十七年間 印度留學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瑜伽師地論과 成唯識論 등을 指稱한다. 이와같이 圓測法師는 명실공히 新舊의 唯識學을 통달한 大唯識學者가 되었다. 그는 당시 中國⁽²⁾內에서 어느 學者 못지않은 學識을 가진 唯識學者였기 때문에 新羅人은 물론 中國學者들에 의하여 존경을 받았다. 한 예를 들면 外國語도 六個國語를 할 줄 알았고, 또 中國의 巨僧인 玄奘法師가 번역한 誤譯을 지적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다. 이러한 學德을 겸비하였기 때문에 中國內에서 唯識學派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中國의 王家에서 主持職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주해온 西明寺에서 弟子들을 많이 배출할 수도 있었다. 그리하여 흔히들 西明學派 또는 新羅의 唯識宗이라고 불리울 만큼 學派의 세력이 매우 컸다.

이와같이 圓測法師는 中國에서 名聲을 떨친 學僧이었다. 그리고 日本에까지도 名聲을 떨쳐 現存하는 中國 慧沼大師의 成唯識論了義燈과 日本 善珠大師의 成唯識論了義燈證明記 등에도 法師의 學說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의 학문세계는 모방주의가 아니라 항상 창조적이었고 大乘的이었기 때문에 가끔 中國系 보수적인 學者들과 論靜이 일기도 하였다. 그 論靜에서 결코 지지않았으며 그가 84세에 中國의 佛授記寺⁽³⁾에서 入寂할 때까지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法師는 현재도 中國의 興教寺에 있는 玄奘法師의 塔 옆에 圓測法師塔⁽⁴⁾이라고 새겨진 圓測塔이 세워져 있으며 入寂한 후 1,300년동안 禮拜를 받아오고 있다. 여러가지 記錄을 綜合해 보면 圓測法師는 印度의 高僧 地婆訶羅와 함께 大乘密嚴經을 번역하였고 또 實叉難陀와 함께 新華嚴經을 번역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였다. 法師는 著書도 成唯識論疏 등 23部 108卷이라는 많은 著述을 하였다. 現在 남아있는 著述은 애석하게도 解深密經疏十卷과 般若心經贊一卷 그리고 仁王經疏六卷만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現存의 著述을 통하여 法師의 學問世界를 살펴 보면 완전히 國

(1) 宋復 撰, 「大周西明寺放大德圓測法師佛舍利塔銘」(李能和 著『朝鮮佛教通史 編下』p. 164).

(2) 贊寧 撰, 『宋高僧傳』卷四, 圓測條『新修大藏經』卷 第50 p. 727, 中.

(3) 羽溪了諱, 論文「新羅系의 唯識宗」『東亞大會記要』, p. 413.

(4) 前揭書.

際的인 碩學임을 알 수 있다. 印度와 中國에서 발간된 권위있는 經典과 論典을 거의 망라하여 참고자료로 引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眞諦三藏과 玄奘法師 등의 學說을 비교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는 등 그 著述態度가 완전한 論文形式을 갖추고 있다. 특히 現在 남아있는 저술가운데 解深密經疏는 唯識宗의 根本所依經典인 解深密經의 註疏로서 唯識學의 근본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解深密經疏는 여러 心性說과 함께 染汚의 心性을 淨化하는 止觀思想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因緣으로 말미암아 唯識學上의 止觀思想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唯識學의 原典인 解深密經에 止觀思想이 많기 때문에 唯識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必然的으로 止觀思想을 接하게 된다. 解深密經 다음으로 唯識學의 중심 論典인 瑜伽師地論⁽⁵⁾도 역시 止觀思想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瑜伽師地論은 人間의 마음을 分析하여 善惡의 所在를 밝히고 그 惡을 淨化하기 위하여는 止觀의 修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瑜伽(yoga)라는 말 자체가 止와 觀을 합친 말이며, 禪定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瑜伽師地論에 止觀思想⁽⁶⁾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豫見할 수 있는 書名이다. 그러므로 圓測法師는 解深密經에 대한 疏를 쓸 때 瑜伽師地論의 止觀思想⁽⁷⁾을 많이 引用하고 있으며 止觀의 대상인 心性의 내용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止觀의 修行을 해야 할 目的을 밝히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복잡한 心識의 내용을 잘 알아야 止觀을 올바르게 닦을 수 있으며 또한 智慧와 正覺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本論에는 解深密經疏를 중심으로 圓測法師의 心識觀의 概要를 먼저 고찰한 다음에 止觀思想의 내용을 考察하기로 하겠다.

III. 心識說의 概要

佛敎를 흔히 마음의 宗教라고도 한다. 그것은 우리 人間의 精神世界를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또 그 精神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思想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人間의 精神은 偉大하며 무엇이든 創造할 수 있는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唯識學에서는 萬法은 唯識이라 하였고 華嚴學에서는 一切는 唯心造라고 하였다. 이러한 語句는 모두 佛敎의 唯心思想을 대변한 것으로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人間의 마음은 모든 것을 創造한다는 뜻이다. 人間은 모든 精神文化와 物質文化를 창조하고 善과 惡도 마음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眞理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世上에 알리고자 한 學問을 唯識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唯識學을 佛敎의 心理學 또는 佛敎의 認識論이라고도 부른다. 모든 眞理는 마음으로부터 창조되고 있다는 思想을 보다 心理學的으로 分析하여 설명하고자 한 學說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

(5) 前揭書.

(6) 彌勒說, 「瑜伽師地論」『新修大藏經』, 卷30.

(7) 上同, p. 450, 下.

다. 이제 圓測法師은 이러한 唯識學說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하며 또 圓測法師의 여러 學說 가운데 心識說 만을 要略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佛敎에서 마음을 原始的으로 表現할 때 心意識이라고 한다. 이들 心意識思想이 발달하여 小乘佛敎의 心意識이 되고 또 大乘佛敎의 心意識이 되었다. 그러므로 心識이란 말은 心意識을 줄인 말이며 또한 마음을 總稱한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心識說의 理論은 大乘唯識學에 와서 合理的인 理論으로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大乘唯識學의 心識說을 圓測法師은 解深密經疏⁽⁸⁾에서

心, 意, 識은 三種의 別義가 있다' 集起는 心이라 이름하고 思量은 意라 이름하며 了別은 識이라 이름하는 것을 別義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같이 圓測法師은 心, 意, 識의 別義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法師은 集起와 思量, 그리고 了別의 뜻을 八識으로 확대하여 唯識學의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 八識思想의 要旨는 解深密經疏⁽⁹⁾卷三에

이들 三義는 비록 八識에 通한다 하더라도 勝顯의 뜻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第八心이라고 하는 바 이는 모든 法種을 集合하였다가 모든 法을 生起한다. 第七은 意라하는 바, 이는 第八識을 緣하여 恒常 審細하게 思量하여 我執 등을 야기한다. 나머지 六識은 識이라 하며 이들 識은 六種의 別境에 대하여 間斷이 있고 變動하는 작용을 가끔 야기하면서 了別하는 활동을 한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의 내용을 보면 人間의 心識을 八種으로 구별하여 心, 意, 識에 배당하고 있다. 즉 第八識에 해당하는 心은 곧 阿賴耶識으로서 集起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阿賴耶識은 모든 業力과 種子(因)를 集合하여 보존하고 있다가 다시 결과를 발생케 하는 역할을 한다. 第七識에 해당하는 意는 곧 末耶識으로서 第八阿賴耶識에 대하여 實在의 我라고 하는 我執을 야기한다. 이를 一名 思量心이라고 하는데 思量의 根本義는 執着의 煩惱를 야기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다음으로 六識에 해당하는 識은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등을 말하며 이들 六識은 각기 대상을 認識하는 了別作用의 뜻을 지니고 있다. 了別이라는 말은 分別 또는 識別의 뜻으로서 대상을 認識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識은 了別의 뜻이 있다. 왜냐하면 識은 「了別爲性」이라고 解釋한 바와 같이 了別하는 것을 性質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了別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識은 항상 對像을 要한다. 그 理由는 識을 無漏識⁽¹⁰⁾과 有漏識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了別作用은 有漏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無漏識은 淸淨心을 의미하며 淸淨心은 絕對의 境地를 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相對의인 인식의 대상이 必要없다. 그러나 有漏識의 漏는 곧 煩惱, 또는 不淨을 뜻하기 때문에 不淨心에 해당하며 동시에 相對的인 認識을 하게 되므로 대상이 필요하다. 이것은 相對의 世界에 사는 衆生들의 精神

(8)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309, 中『韓國佛敎全書』卷一.

(9) 圓測撰, 「解深密經疏」卷三, p. 216, 上『韓國佛敎全書』卷一.

(10) 上同, p. 217 下.

世界이며 絶對의 眞理(眞如性)를 의면하면서 사는 人間의 精神生活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圓測法師는 有漏識의 認識對像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解深密經疏⁽¹¹⁾ 卷三에

所緣은 四種이 있다. 그 四種은 一은 五識所緣이요 二는 意識所緣이며 三은 末那識所緣이요 四는 阿賴耶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八識은 所緣의 境界가 각각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所緣이란 말은 직역하면 반연할 바라고 하지만 의역하면 認識(了別)의 대상이란 뜻이다. 즉 心識이 了別하는 대상이므로 항상 객관계의 認識의 대상은 受動的인 입장에 있다. 이에 대하여 心識은 認識의 主體로서 能緣이 되며 能緣은 能히 반연한다고 직역할 수 있으며 동시에 능동적으로 인식한다고 意譯할 수 있다. 이와같이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厭惡과 好善 등의 分別을 認識하게 되며 따라서 善惡의 행위도 心識의 作用이므로 心識을 淨化할 必要性은 絶對적인 것이다. 여기에 淨化의 核思想인 止觀을 修行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各識의 所緣境을 좀더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1. 五識의 所緣: 五識所緣은 五識의 所緣境을 말한다. 五識은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등을 말하며 이들 五識은 반드시 所緣境이 있게 된다. 그 所緣境⁽¹²⁾은 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등 五境을 말한다. 이들의 因緣關係를 說明하면 1) 눈으로 보는 마음(眼識)은 빛깔을 대상(色境)으로 하여 靑, 黃, 赤, 白 등을 了別하고, 2) 귀로 듣는 마음(耳識)은 소리를 대상(聲境)으로 하여 그 소리가 好, 惡, 高, 下 등을 了別하며 3) 코로 냄새를 맡는 마음(鼻識)은 여러 가지 냄새를 상대(香境)로 하여 냄새가 좋다(好香), 아니면 나쁘다(惡香)고 하며 동시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等不等香) 등의 了別을 하게 된다. 4) 혀로 냄새를 맡는 마음(舌識)은 맛을 대상(味境)으로 하여 甘, 酢, 鹹, 辛, 苦⁽¹³⁾ 등을 認識하고, 5) 몸으로 촉감을 구별하는 마음(身識)은 접촉하는 대상(觸境)인 輕, 煖, 冷, 飢 등을 了別한다. 五識은 이와 같이 인식의 대상을 必要로 하며 各識의 所緣境인 五境을 상대로 인식하는 活動을 五識所緣이라고 한다.

2. 意識의 所緣: 意識은 有漏意識으로서 十八界를 두루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圓測法師에 의하면 意識은 過去, 現在, 未來의 三世를 두루 인식(遍緣)한다. 그리고 이 意識은 善과 惡을 區別하고 모든 대상에 대하여 價値를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 意識은 物質界와 精神을 모두 인식의 범위로 하면서 또한 前五識이 인식의 대상으로 하는 五境도 인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기 때문에 이 意識을 廣緣意識⁽¹⁴⁾이라는 別名을 붙인다. 또 다른 別名을 보면 前五識이 대상을 인식하려 할 때 이 意識은 반드시 거기에 가담하여 晝중적인 善惡의 가치를 판

(11) 上同, p. 219 上.

(12) 護法造, 『成唯識論』 卷七, p. 32(性相學聖典刊行會版).

(13) 世親造, 『阿毘達磨俱舍論』 卷第一 p. 2 下 『新修大藏經』 卷29.

(14) 深浦正文著, 『唯識學研究』 卷下, p. 310.

단하므로 이때의 意識을 五俱意識이라고 한다. 즉 前五識과 俱時에 동참하여 分別活動을 한다는 別名이다. 만약 前五識과 그 대상이 같다면 이를 同緣意識이라 하고 서로 틀릴 때는 不同緣意識이라 한다. 그리고 意識은 단독으로 內外를 思慮하고 分別할 때가 있는데 이때의 別名을 獨頭意識이라 하며 그리고 이 意識은 꿈속에도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꿈속의 활동을 夢中意識이라 한다. 또 다른 別名은 意識이 散亂하고 雜念이 많은 것을 獨散意識 또는 散亂意識이라고 한다. 그러나 意識은 散亂하지 않고 雜念이 없으며 항상 安定된 경지를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意識과 眼識 등 前五識과 色境 등 五境과 일치되어 하나로 이루어지는 心一境性을 유지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때의 意識을 定中意識이라고 한다. 사실상 止觀의 修行도 이 定中意識⁽¹⁵⁾의 生活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이 意識의 活動은 매우 광범위하며 이 意識에는 五一種의 作用이 있다. 이를 흔히 五一心所라고 하고 心所는 心識의 所有物이라는 뜻이며 이를 갖추어 말하면 心王所有法이라고 한다. 心王은 八識 하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며 그것은 八識이 部下와 所有法에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王이 또 臣下를 부릴 때 단호한 결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유하여 心王이라고 한다. 즉 八識은 心體이고 心所는 心作用인 것이며 그 作用은 世俗의 表現으로는 精神作用을 뜻한다. 이와 같은 心作用은 五一種이 있으며 五一種⁽¹⁶⁾의 心所는 모두 意識에 의하여 발생된다. 물론 前五識에도 心所有法이 있다. 그러나 五識에는 三四心所만이 相應한다고 하였다. 圓測法師에 의하면 有漏五識은 遍行五, 別境五, 善十一, 根本惑三, 隨惑十(中隨惑二, 大隨惑八) 등 三四心所와 상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意識은 가장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十七心所가 더 많은 五一心所와 상응한다. 이러한 心所가운데는 善心の 心所도 있고 惡心の 心所도 있다. 善心에 나타나는 心所⁽¹⁷⁾는 信, 慚, 愧, 無貪, 無瞋, 無痴, 勤, 安, 不放逸, 行捨, 不害 등 十一種으로 설명하고, 惡心の 心所는 煩惱心所와 隨煩惱心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煩惱心所는 貪, 瞋, 痴, 慢, 疑, 惡見이고, 隨煩惱心所는 忿, 恨, 覆, 惱, 嫉, 慳, 誑, 諂, 害, 僞, 無慚, 無愧, 掉舉, 惛沈, 不信, 懈怠, 放逸, 失念, 散亂, 不正知 등이다. 이와같은 善心所와 惡心所는 서로 교차되면서 意識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煩惱의 心所를 정화하고 善의 心所를 増上시키며 智慧로운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데 止觀思想의 근본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止觀은 意識을 맑게하여 事理를 分明히 해주고 또한 所緣境을 인식할 때 正見과 正知를 갖도록 해 주기 때문이다.

3. 末那識의 所緣境: 圓測法師는 末那識을 有漏 第七識⁽¹⁸⁾이라 하였고 前五識과 第六意識 다

(15) 上同, p. 312.

(16) 圓測 撰, 『解深密經疏』卷三 p. 219, 下, 『韓國佛教全書』卷一.

(17) 無著造, 『顯揚聖教論』卷一 p. 480, 『新修大藏經』卷31.

(18) 圓測 撰, 『解深密經疏』卷三 p. 219, 上(上同).

음으로 深層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內心에서만 활동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였다. 末那는 意이며 意는 思量을 뜻하고 思量⁽¹⁹⁾은 無我的 경지를 妄覺하여 顛倒心을 야기하는 作用을 한다. 法師는 末那識의 活動을

有漏第七末那識은 오직 第八 阿賴耶識의 見分을 執着하여 我執과 法執을 야기한다.⁽²⁰⁾

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末那識의 性質과 作用을 要略하여 說明한 말이다. 즉 末那識의 所緣에 해당하는 인식의 대상은 阿賴耶識이며 阿賴耶識가운데에서도 見分을 상대로 無知를 나타내어 我執과 法執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見分은 各識마다 相分・見分・自證分, 證自證分 등 四分作用이 있으며 이들 四分가운데의 見分을 말한다. 末那識은 그 見分에 대해서 我相을 나타내며 我痴, 我見, 我慢, 我愛 등 四煩惱⁽²¹⁾를 나타낸다. 四煩惱는 모든 煩惱의 根本이 되는 것으로서 我痴는 無我인 眞如性을 妄覺한 것을 말하고, 我見은 無我的 顛倒上에 我執을 나타내는 妄見을 뜻하며, 我慢은 執着된 我見으로 부터 自慢을 나타내는 것이고, 我愛는 我執 위에 집착된 自我에 대해서 貪着함을 뜻한다. 이와 같이 第七 末那識은 四煩惱를 항상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罪惡을 惹起할 수 있는 可能性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自己에 대한 愛着이 강한 煩惱이므로 自己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可能性의 根本이 되기 때문이다. 圓測法師는 이러한 四煩惱를 중심하여 遍行心所의 五種과 八大隨惑과 別境心所가운데 慧心所 등 十八心所를 나타내며 活動하는 것이 第七末那識의 性能이라고 하였다. 心所는 心體가 所有한 作用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心所에는 根本이 되는 것과 枝末이 되는 煩惱가 있다. 위에서 말한 末那識의 四煩惱는 모든 煩惱가운데서 가장 根本이 된다고 해서 이를 根本煩惱라고 한다. 이 根本煩惱는 第六意識보다도 深層에 있는 末那識의 作用이기 때문에 비록 意識의 煩惱가 淨化되었다고 하더라도 잘 淨化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意識으로 하여금 罪意識을 나타내도록 하는 뿌리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止觀을 修行한다고 하더라도 枝末의인 번거만을 淨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勇猛精進하여 人間的 深層에 자리잡고 있는 末那識의 四煩惱까지 淨化해야 究竟의 眞如性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阿賴耶識의 所緣境: 阿賴耶는 包藏, 含藏, 攝持, 包攝 등의 뜻으로 解釋한다. 이들의 名詞에 의하면 阿賴耶識은 앞에서 말한 七識이 각기 성질을 다르게 활동한 業力을 攝持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圓測法師는 能藏, 所藏, 執藏⁽²³⁾ 등 三藏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能藏은 마음의 行爲에 의하여 조성되는 業力을 바로 阿賴耶識에 보존하는 것으로서 阿賴耶識은 그 業力(種子)들을 能動的으로 包藏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所藏은

(19) 無着造, 『大乘阿毘達磨集論』 卷一 p. 666 上, 『新修藏經』 卷31.

(20) 前揭書.

(21) 前揭書.

(22) 前揭書.

(23) 圓測撰, 『解深密經疏』 卷三, p. 225 下(『韓國佛教全書』 卷一 以下韓佛書라 함).

七識이 조성한 種子를 受動的으로 받아드리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七轉識이 행동하여 조성한 種子가 능동적으로 보존된다는 뜻을 갖추고 있다. 다음 執藏은 第七末那識에 의하여 執着되어 지는 所執性을 뜻하며 이때의 末那識은 능히 집착하는 能執性의 뜻을 지닌다.

이와 같이 阿賴耶識에는 三藏의 뜻이 구비되어 있으며 肉體와 精神의 生存을 持續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阿賴耶識은 最初의 生命을 탄생시키고 또 人間의 最後의 生命을 유지시키는 가장 根本이 되는 生命體이다. 現在의 精神行爲와 肉體의 行爲도 阿賴耶識에 의하여 可能하며 阿賴耶識의 存在如何에 따라 生과 死가 구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阿賴耶識의 所緣境은 三種이 있다. 즉 解深密經疏⁽²⁴⁾卷三에

賴耶의 所緣은 三種이 있다. 그 三種은 一 器世間, 二 有漏種, 三 有根身을 말한다. 이들 三種은 阿賴耶識의 因緣力이 있기 때문에 自體에서 發生할 때 內面으로는 種子와 有根身을 變化하여 出生하고, 外面으로는 器世間을 變化하여 出生케 한다. 즉 自體에서 變化하여 出生한 것을 스스로 攀緣의 대상(自所緣)으로 하며 阿賴耶識의 行相은 自所緣에 의하여 生起하게 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은 圓測法師가 말하는 阿賴耶識의 所緣境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들 所緣境은 阿賴耶識으로 부터 發生되고 變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阿賴耶識은 能히 創造하는 主體가 되고 種子와 肉體(有根身)와 居住하는 世界(器世間)는 受動的으로 創造된 存在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阿賴耶識이 創造하여 놓고 또 그것을 상대로 반연하면서 이 世上에 存在하도록 하는 能力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衆生各自의 世界는 各自의 阿賴耶識에 의하여 創造되어지며 이를 상대로 生活해 가는 것이 衆生界의 生活인 것이다. 다만 自體內에 있는 種子是 前生에 조성한 業力이 今生에도 阿賴耶識에 보존되어 있게 되므로 阿賴耶識의 能變力을 敎示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阿賴耶識은 種子에 의하여 生動하면서 또한 種子를 보존시켜 주고 有根身(肉體)과 自身이 生活하고 있는 外部世界를 유지시켜 주는 能力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에서 다른 別名으로 阿陀那識이라고도 稱한다. 阿陀那識은 執持라 解釋하는데 圓測法師는 阿賴耶識內의 種子와 色根⁽²⁵⁾(身)을 能히 執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IV. 心識과 肉體와의 關係

위에서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末那識, 阿賴耶識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 밖에도 圓測法師는 阿摩羅識⁽²⁶⁾이라는 無漏識이 人間에게 존재하면서 모든 眞理와 智慧

(24) 上同, p. 224 下.

(25) 上同, p. 225 中.

(26) 上同, p. 217.

를 유지시켜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阿摩羅識은 無垢識이라 번역되기도 하는 精神界는 위에서 말한 八識의 體性이며 實性(眞如性)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學派도 없지 않다. 이 문제는 여기서 省略하기로 하고 이제는 心識과 肉體의 관계를 잠시 고찰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止觀思想은 마음만을 淨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肉體의 淨化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理由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肉體는 阿陀那識에 執持되어 生存하게 되며 동시에 모든 心識은 肉體에 의지하여 활동하는 등 相互 연관속에서 인간이 生存하기 때문이다. 圓測法師는 이러한 것을 增上緣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心識은 所依根⁽²⁷⁾에 의지하여 인식 대상인 所依境⁽²⁸⁾을 인식한다고 하였다. 根은 곧 肉體의 조직으로서, 인식기관을 의미한다. 이 根은 마음의 활동처로서 마음으로 하여금 객관세계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發識取境⁽²⁹⁾이라고도 한다. 人間의 肉體는 마음(心識)의 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唯識學에서는 五種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成唯識論⁽³⁰⁾에 의하면 依, 發, 屬, 助, 如의 五義에 의하여 마음의 활동이 可能하다고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依止의 뜻(依眼之識) : 肉體(根)는 눈, 귀, 코, 혀, 몸 등 정신활동의 의지처가 된다. 마음은 이들 육체에 의지하여야 활동이 가능하다.
- 2) 發生의 뜻(根所發) : 육체는 마음을 발생시켜 보고 듣고 하며, 善과 惡을 구별하도록 한다.
- 3) 所屬의 뜻(屬於根) : 육체는 마음을 능동적으로 소속시켜 일정한 안식처를 제공한다.
- 4) 助力的 뜻(助於根) : 육체는 心識의 활동에 助力하여 그 활동이 원만하게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육체에 이상이 있으면 정신활동이 원만하지 못하다.
- 5) 如一의 뜻(如於根) : 육체(根)는 정신(識)과 如一하고 平等하며 모든 행동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없이 육체와 정신이 調和를 이루어 나간다. 만약 육체와 정신이 調和를 이루지 못하고 平等關係를 유지하지 못하면 원만한 人間의 生活이 되지 못한다.

이상과 같이 육체와 정신관계를 五種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圓測法師는 또 心識은 모든 因緣依⁽³¹⁾와 開導依 그리고 等無間緣依 등 三種依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 前五識은 五色根⁽³²⁾, 分別依(第六意識), 染淨依(末那識), 根本依(阿賴耶識) 등 四依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第六意識은 染淨依(末那識)와 根本依(阿賴耶識) 등 二依가 있고, 第三末那識은 오직 第八阿賴耶識에만 의지하므로 一依만이 있으며, 동시에 第八阿賴耶識도 역시 第七末那識에만 의지하여 활동하므로 一依만이 있다고 하였다. 이들 心識의 依止處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만약 一依라도 闕하게 되면 서로 활동을 못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첫째로 肉體와 精神의 관계와 또 精神界는

(27) 上同, p. 218.

(28) 上同.

(29) 金東華 著, 『俱舍學』, p. 77.

(30) 護法等造, 『成唯識論』 卷5, p. 26, 『新修大藏經』 卷31.

(31)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三 p. 218 下, 『韓佛書』 卷一.

(32) 上同, p. 218 下(上同).

精神界대로 서로 依止하고 扶助해주므로서 원만한 人間의 生活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 原文을 소개하여 보고자 한다. 즉 解深密經疏⁽³³⁾卷三에

眼等五識 各有四依 一同境根 謂眼等五根 各望自識 二分別根 謂五識俱同緣意識 三染淨根 謂第七末那四根本依 謂第八識 故唯識云 由此五識俱有所依 定有四種 謂五色根 六七八識 隨闕一種 必不轉故 同境分別染淨根本所依別故 第六意識 俱有所依 唯有二種 故唯識云 第六意識 俱有所依 唯有二種 謂七八識 隨闕一種 必不轉故 第七末那 俱有所依 唯有一種 故唯識云 第七意識 俱有所依 俱有一種 謂第八識 藏識若無 必不轉故 第八賴耶 俱有所依 亦唯一種 故唯識云 阿賴耶識 俱有所依 亦但一種 謂第七識 彼識若無 定不轉故 論說藏識 恒與末那 俱時轉故 解云 八識所依有漏無漏 無有差別

이라고 記錄하고 있다.

이 記錄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心識과 육체등이 상호간의 원만한 和合을 要하며 精神과 肉體의 調和를 이루지 않으면 人生의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時에 의지한다는 말을 俱有所依라 하며 俱有所依가 결여되면 心識의 활동도 不可能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圓測法師는 여러면으로 人間의 마음을 분석하여 敎示하고 있다. 그것은 唯識學의 三大要素라고 할 수 있는 敎理觀에서였다고 볼 수 있다. 三大要素란 1. 중생의 精神界와 肉體 그리고 現象界를 확실히 알고, 2. 衆生의 佛性과 眞理의 世界를 확실히 알아야 하며, 3. 衆生의 苦惱와 罪惡의 心識을 淨化하여 佛性を 회복하고 菩提와 涅槃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철저히 菩薩行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敎理를 분석하여 볼 때 衆生의 八識과 八識으로부터 발생하는 無知와 煩惱를 설명하는 것은 正化의 대상과 내용을 확실히 알자는 것이다. 圓測法師도 衆生의 내용을 먼저 說明해주고 번뇌 등 非眞理의인 心識을 正化하기 위해서는 止觀 등 大乘의인 修行을 하도록 하는 思想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本論은 大乘佛敎의 修行思想을 모두 考察하지 않고 圓測法師가 말한 止觀思想만을 考察하고자 한다.

V. 瑜伽와 止觀의 大義

위에서 圓測法師의 心識觀을 요약하여 살펴 보았다. 心識에 의하여 善과 惡도 發生하며 그 心識을 淨化하는 것이 止觀의 修行이다. 그런데 止觀하는 수행방법을 瑜伽라고도 한다. 瑜伽는 印度의 禪을 의미하며 佛敎에서도 瑜伽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다. 瑜伽는 相應⁽³⁵⁾ 또는 調息의 뜻으로서 調息의 방법에 의하여 마음을 攝持하고 正理에 相應하는 경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수행이다. 이러한 瑜伽思想은 더욱 심오하게 발전하여 止觀思想과 一致되는 사상으로 격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瑜伽라는 禪思想이 본격적으로 修行되고 또 思想的으로 거론한 著述은 瑜伽

(33) 上同.

(34) 上同, 卷四, p. 236.

(35) 『望月佛敎大辭典』 卷五, p. 4919 中.

師地論이라고 할 수 있다. 瑜伽師地論은 A.D. 四世紀頃에 저술된 唯識學의 原論이다. 여기에는 먼저 心識說과 煩惱說 등 人間의 心理를 설명하고 이를 淨化하는 수단으로서 瑜伽와 止觀을 修行하도록 저술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瑜伽師地論에 나타난 瑜伽의 뜻을 먼저 살펴 보고 다음에 圓測法師의 瑜伽에 대한 理論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瑜伽師地論의 瑜伽義

瑜伽師地論에 의하면 瑜伽止觀⁽³⁶⁾ 또는 覺寤瑜伽⁽³⁷⁾ 등의 명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들 瑜伽를 修行하는 사람들을 瑜伽師라고 하며, 이는 오늘날 禪師에 해당한다. 예문을 들면, 瑜伽師地論⁽³⁸⁾에

모든 比丘들이 觀行을 勤勉하게 修習하는 것을 瑜伽師라 하며 이들은 모든 所緣에 대해서 能히 마음을 安住한다.

曾聞長老頡頏代多問世尊 言大德 諸有比丘勤修觀行 是瑜伽師 能於所緣 安住其心

라고 한 글에서 알 수 있다. 觀行은 곧 瑜伽이며 止觀을 의미한 것이다. 동시에 이 觀行을 수행하면 人間이 인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所緣境에 대해서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고 항상 安住할 수 있다는 것이다. 文獻에 의하면 觀行의 범위는 매우 넓으며 瑜伽師地論⁽³⁹⁾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 1) 貪心이 많으면 不淨과 因緣(不淨緣)이 있는 곳에 마음을 安住할 것.
- 2) 瞋心이 많으면 慈愍에 마음을 安住할 것.
- 3) 痴行이 많으면 緣起의 性相에 마음을 安住할 것.
- 4) 無常, 苦, 空, 無我的 眞理에 愚痴하거던 역시 모든 因緣의 集散인 緣起法에 마음을 安住할 것.
- 5) 欲界의 欲心を 버리고자 하면 諸欲의 麤性和 諸色의 靜性에 마음을 安住할 것.
- 6) 만약 色界의 欲心を 해탈하고자 하면 諸色의 麤性和 無色의 靜性에 마음을 安住할 것.
- 7) 尋伺行이 있으면 阿那波那念(數息觀)에 마음을 安住할 것.
- 8) 一切處에 대해서 妄見하는 薩迦耶事를 두루 해탈하려면 苦諦, 集論, 滅諦, 道諦에 마음을 安住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觀行을 닦는 사람은 모든 것에 마음을 安住시켜 관찰하고 그 眞理를 깨달아야 만이 마음의 安定과 涅槃을 획득할 수 있고 모든 苦痛을 解脫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곧 瑜

(36) 彌勒說, 『瑜伽師地論』 卷13, p. 346 下, 『新修大藏經』 卷30.

(37) 上同, p. 397 中.

(38) 上同, 卷26, p. 428 上.

(39) 上同.

伽를 닦는 길이며 瑜伽師들의 修行規範이기도 하다. 瑜伽師들은 위와 같은 여러가지를 상대로 하여 選擇(簡擇)하는 智慧를 갖고, 또 보는 것(所見), 듣는 것(所聞), 깨닫는 것(所覺), 아는 것(所知事)등에 대해서 항상 見聞覺知的 增上力을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고 三摩呬多(定)의 作意(警覺)와 思惟分別에 의하여 勝解를 야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瑜伽師들은 止觀과 관계되는 修行을 많이 하는데 몇가지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한다.

1. 瑜伽師⁽⁴⁰⁾는时时 각각 心識을 寂靜케 하고 慧法을 增上시키는 毘鉢舍那(觀)에 의하여 觀行을 닦아야하며 心識을 安住케 한다.

2. 瑜伽師는 모든 認識의 대상(所緣境)에 대해서 因緣法의 顛倒없이 如實하게 두루 了知하고 解了하며 그 心識을 安住케 한다.

3. 瑜伽師는 觀行을 닦을 때 無間の 加行과 殷重의 加行 등 여러 加行을 통하여 때때로 止相과 舉相과 瑜相을 修習하여 一切의 龐重한 煩惱가 모두 息滅케 하며 따라서 觸證所依清淨을 증득하고 意識과 末那識 등 여러 心識을 安住케 한다.

이와 같이 瑜伽師가 觀行을 닦는 것은 곧 止觀을 닦는 것이며 止觀과 瑜伽는 同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瑜伽는 止觀思想의 核心이 되는 九種心住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瑜伽論⁽⁴¹⁾卷二四에

或處靜室 令心內住等住安住及與近住 調伏寂靜 最極寂靜一趣等持 或復於彼毘鉢舍那 修瑜伽行 如是等類說名爲默

이라고 기록한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이 내용에 의하면 靜室에 居處하면서 1. 內住, 2. 等住, 3. 安住, 4. 近住, 5. 調伏, 6. 寂靜, 7. 最極寂靜, 8. 一趣, 9. 等持 등을 修行하고 또 毘鉢舍那에서 瑜伽行을 修行한다고 하였다. 이는 한눈으로 瑜伽行을 닦는 瑜伽師들이 九種心住도 修行한다는 것을 말해주며 동시에 止觀과 瑜伽의 一致點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思想은 圓測法師에게도 전해져서 圓測의 解深密經疏⁽⁴²⁾에 九種心住思想을 인용하여 止觀思想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2. 圓測法師의 瑜伽觀

위에서 瑜伽師地論의 瑜伽說을 살펴 보았다. 瑜伽는 止觀과 통하며 意識과 末那識 등의 心識을 통일하고 雜念과 煩惱를 解脫하며 모든 대상을 接할 때 마음의 동요없이 安住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구경의 경지인 眞如性을 깨다르며 涅槃을 실현하는 것이 止觀思想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을 대폭 받은 圓測法師는 어떠한 瑜伽說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40) 上同.

(41) 彌勒說, 『瑜伽師地論』卷24, p. 415 中, 『新修藏經』卷30.

(42) 圓測撰, 『解深密經疏』卷6, p. 309 中, 『韓佛書』卷一.

圓測法師는 두말할 것도 없이 解深密經의 瑜伽思想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解深密經에 대한 疏를 썼기 때문이다. 解深密經의 分別瑜伽品⁽⁴³⁾에 의하면 奢摩他(止)와 毗鉢舍那說(觀)의 根本敎說이 많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止觀思想이 瑜伽品에 설명되었다는 것은 瑜伽의 뜻이 곧 止觀의 뜻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豫示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圓測法師는 그러한 瑜伽思想을 독창적인 瑜伽思想으로 발전시켜 解深密經疏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로 三乘의 境, 行, 果⁽⁴⁴⁾등 모든 法을 瑜伽라 하며 그 理由는 一切는 方便善巧와 相應하는 義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이들 境, 行, 果의 내용을 境瑜伽, 行瑜伽, 果瑜伽 등으로 구분하여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境瑜伽: 境瑜伽⁽⁴⁵⁾는 一切의 境界에 顛倒性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 人間이 心識을 통하여 客觀界를 인식할 때 그 마음에 번뇌가 없고 동요가 없는 智慧로서 관찰하는 경지를 말한다. 新羅 遁倫의 瑜伽論記⁽⁴⁶⁾에서도

모든 心識의 所緣을 境이라고 이름하여 모든 智慧가 證得하는 것을 理라고 이름한다. 理는 深奧한 것이고, 境은 淺한 것이며 心識이 取하는 境은 顛倒性이 없고 執着도 없으며 智慧가 證得한 理와 더불어 相違가 없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境을 상대하였을 때 瑜伽師는 마음의 동요없이 智慧로 그 眞理를 증득하며 境과 理가 一如함을 깨닫게 되는 경지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 衆生은 八識의 번뇌가 동요하여 마음의 安住를 파괴하기 때문에 境瑜伽의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瑜伽의 수련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圓測法師는 이러한 境瑜伽⁽⁴⁷⁾의 경지는 一切의 境에 서로 隨順하는 性(相隨順性)이며 究竟性에 나아가 菩提와 涅槃을 能히 取證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正理의 數와 行果와 더불어 相應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新羅 遁倫法師는 몇가지 別釋⁽⁴⁸⁾을 붙이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 1) 因과 果가 서로 互觀되어 調和를 이루는 것을 瑜伽라 한다.
- 2) 瑜伽師地論의 決擇分 등 곳곳에 설명되어 있는 染과 淨이 無性하다는 말은 瑜伽를 뜻한다. 왜냐하면 서로 契合하고 順應하는 원리를 나타냄이 最勝하기 때문이다.
- 3) 眞如는 眞理中에서 가장 勝하고 一切의 德과 相應하기 때문에 이를 瑜伽라 한다.
- 4) 一法이 增加하여 百法이 되는 가운데에서도 法門의 別義가 있지만 서로 위배되지 않고 화합하기 때문이다.

(43) 玄奘 譯, 『解深密經』 卷第三, 「分別瑜伽品」第六.

(44)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六, p. 296 中, 『韓佛書』 卷一.

(45) 上同.

(46) 遁倫 撰, 『瑜伽論記』 卷一, p. 401 中, 『韓佛書』 卷二.

(47) 上揭書.

(48) 遁倫 撰, 『瑜伽論記』 卷一, p. 401 中.

5) 色, 受, 想, 行, 識 등 五蘊과 六根과 六境 등 十二處와 六識, 六根, 六境 등 十八界는 모두 瑜伽라 이름한다. 왜냐하면 一切의 境界를 總攝하고 또 根機에 順應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瑜伽의 別義를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에 의하면 人間을 비롯한 모든 衆生과 또 自然속의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서로 대립하지 않고 마찰없이 진리롭게 순응함을 境瑜伽라 한다. 境은 곧 대상을 뜻하며 그 境은 眞理의인 것과 비진리적인 것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진리롭게 수용하는 智慧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하여 圓測法師도 이 境瑜伽⁽⁴⁹⁾는 一切에 모두 通한다 하였다. 그러나 別義에 있어서는 五蘊, 十二處, 十八界 등까지도 상응하는 것이 瑜伽의 뜻이라고 하였다.

나. 行瑜伽: 圓測法師는 行瑜伽를 眞理에 순응하는 實踐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行瑜伽를 四種으로 분류하여 正義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⁵⁰⁾

- 1) 一切의 修行은 모든 眞理와 相順하는 것이다(一切行更相順故).
- 2) 一切의 修行은 眞正한 眞理에 합당한 것이다(稱正理故).
- 3) 一切의 修行을 眞正한 敎理에 順應하게 하는 것이다(順正敎故).
- 4) 一切의 修行은 佛次인 正果에 進趣하는 것이다(趣正果故).

이상과 같은 四種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行瑜伽를 설명하고 있다. 이 四種의 行瑜伽는 모든 行에 다 통하지만 그러나 여러 經典과 論典의 眞理에 따라 여러가지 別義가 있다고 하였다. 圓測法師는 그 別義⁽⁵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諸行을 正直하게 修行하는 것을 行瑜伽라 한다.
- 2) 四正勤, 四念處, 四如意足, 五根, 五力, 七覺支, 八正道 등 三十七菩提分法을 修行하는 것을 行瑜伽라 한다.
- 3) 奢摩他와 毗鉢舍那를 平等하게 運道하는 것을 行瑜伽라 한다.
- 4) 菩薩이 所有하고 있는 殊勝한 智慧와 慈悲를 平等하게 雙轉하는 것을 行瑜伽라 한다.

이상과 같이 行瑜伽는 菩薩行으로서 모든 진리에 순응하는 修行을 뜻한다. 이러한 圓測法師의 行瑜伽觀은 遁倫의 瑜伽論記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그 例文을 보면 瑜伽論記⁽⁵²⁾卷一上에

行瑜伽中 亦有總別 總云 謂一切行更相順故 合正理故 順正敎故 趣正果故 說名瑜伽

라고 한 記錄을 대조해보면 곧 알 수 있다. 遁倫法師는 行瑜伽에 대한 總說을 다시 別說로 十七種의 瑜伽說을 내세우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1. 瑜伽師地論⁽⁵³⁾에는 諸行을 正直하게 行

(49)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六, p. 296. 中.

(50) 上同.

(51) 上同.

(52) 遁倫 撰, 『瑜伽論記』 卷一 上, p. 401. 下, 『韓國佛教全書』 卷二.

(53) 上同.

함을 瑜伽라 하였고, 2. 月燈經에는 三十七菩提分法을 修行하는 것을 瑜伽라 하였으며, 3. 大分別六處經에는 止觀을 平等하게 運道함을 瑜伽라 하였고, 4. 海慧經에는 三摩地를 修行함을 瑜伽라고 이름하였으며, 5. 功德實性經에는 生死를 解脫함에 있어서 最要가 되는 緣起觀을 瑜伽라 하였고, 6. 正行經에는 八正道를 瑜伽라 하였으며, 7. 毘奈耶經에는 戒 定 慧 등 三學을 修行함을 瑜伽라 하였고 8. 菩薩의 智慧와 慈悲를 平等하게 동시에 실천하는 것을 瑜伽라 하였으며 9. 無分別定을 攝持하는 것을 瑜伽라 하고 10. 慧到彼岸經에는 空을 觀하며 作意心を 갖는 것이 瑜伽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遁倫法師는 行瑜伽의 別義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내용들은 圓測法師의 行瑜伽說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위에서 고찰한 瑜伽思想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瑜伽師地論의 瑜伽思想과 하등 다를 바 없다. 瑜伽論의 瑜伽를 몇가지 더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즉 瑜伽師地論⁽⁵⁴⁾卷66에 나타난 四種瑜伽의 뜻을 보면

繫屬瑜伽作意 略有四種所緣 一 遍滿所緣 二 淨行所緣 三 善巧所緣 四 淨煩惱今緣 是諸所緣 如聲聞地廣辯應知 此中淨煩惱所緣者 謂世尊說四聖諦及眞如

라고 한 것에서 四種의 瑜伽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능히 알 수 있다. 즉 瑜伽의 作意에는 四種의 대상이 있는데 이는 1. 모든 인식의 대상(所緣)에 대하여 두루 원만(遍滿)하게 하는 것, 2. 淸淨한 修行을 통하여 반연하는 것, 3. 菩薩이 最善을 다하고 巧妙(善權曲巧)하게 衆生에게 慈悲를 베푸는 것, 4. 現今에 煩惱를 淨化하는 것이며 이는 四聖諦와 眞如의 眞理와 통하는 것 등을 뜻한다. 그런데 여기서 聲聞地에도 널리 설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阿毘達磨法蘊足論 등 小乘論을 말한 것 같다. 그 이유는 法蘊足論 등에 瑜伽歸地論과 거의 동일한 止觀說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몇가지 들어 보기로 한다. 法蘊足論⁽⁵⁵⁾卷四에

三摩地는 心住, 等住, 近住, 安住, 不散, 不亂, 攝止, 等持, 心一境性 등을 말한다.

라고 하였고 法蘊足論⁽⁵⁶⁾卷七에는

狹小한 有情들에게 心住, 等住, 近住, 安住, 調伏, 寂靜, 最極寂靜, 一趣, 等持를 갖도록 하여 그 有情들에 樂을 얻고 苦를 離脫케 한다.

라고 하는 등 여러가지 禪과 止觀思想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止觀思想은 瑜伽師地論의 聲聞地品에 九種心住⁽⁵⁷⁾로 기록된 止觀思想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瑜伽師地論의 聲聞地品 등의 止觀論은 法蘊足論 등 小乘佛敎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뭏든 위에서 살펴 본 瑜伽思想은 聲聞乘에서 大乘의 瑜伽師地論에 영향을 주고 瑜伽師地論의 瑜

(54) 彌勒說, 『瑜伽師地論』 卷66, p. 663, 下, 『新修大藏經』 卷 30.

(55) 目乾連造 『阿毘達磨法蘊足論』 卷第四, p. 471. 下, 『新修大藏經』 卷26.

(56) 上同, 卷七, p. 487 中.

(57) 彌勒說, 『瑜伽師地論』 卷30, p. 450 『新修大藏經』 卷30.

伽思想은 圓測法師의 解深密經疏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 果瑜伽: 果瑜伽⁽⁵⁸⁾는 行瑜伽의 結果를 말한다. 瑜伽의 實踐을 통하여 正理에 契合하고 正敎에 順응하며 또한 正因에 合稱한 修行을 한 結果라고 圓測法師는 말하고 있다. 이 果瑜伽도 一切의 果에 통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經典과 論典 그리고 現象界의 根機에 따라 異說이 많다고 하였다. 그 異說이란 力無畏 등 不共佛法을 수행하여 그 과보를 증득하면 果瑜伽라 하며 또 有爲와 無爲 등의 功德을 말하여 果瑜伽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修行은 正理에 合稱되고 正行에 順應하여 正果를 招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주 合理的인 修行과 順行으로 殊勝한 果報를 證得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을 境瑜伽라 하며 聖敎는 또한 瑜伽境이 되며 瑜伽果가 되는 證瑜伽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圓測法師는 果瑜伽의 大義를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하여 遁倫法師는 그 思想을 이어 받아 약간의 보충설명을 가하고 있다. 그 내용은 瑜伽論記⁽⁵⁹⁾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力無畏의 不共佛法은 모든 魔를 降伏받고 異論을 제압함이 다른 것에 비하여 수승하기 때문에 瑜伽라 한다.
- 2) 佛陀가 未來際가 다할 때까지 住함이 없는 것과 같은 無住涅槃을 瑜伽라 한다.
- 3) 佛陀의 無分別智와 大慈悲를 瑜伽라 하며 그것은 自利와 利他가 항상 無盡하기 때문이다.
- 4) 佛陀의 功德을 瑜伽라 함은 法界에 단절이 없이 무궁한 것이기 때문이다.
- 5) 正理 등에 相應하는 三乘果德을 瑜伽라 한다.
- 6) 一切의 果德이 서로 離脫하지 않은 三身과 三德을 瑜伽라 한다.
- 7) 果位에 攝持한 有爲와 無爲의 모든 功德聚를 瑜伽라 한다.

이상과 같이 遁倫法師는 七種의 別義로 瑜伽를 설명하고 있다. 이들 瑜伽思想은 究竟의 和合位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境, 行, 果를 瑜伽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瑜伽를 통한 智慧의 發達과 實踐修行의 功德이 無限한 것은 결국 瑜伽의 본뜻인 相應의 의미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遁倫法師는 네가지로 분류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 있다. 그 四種의 相應義⁽⁶⁰⁾는 1. 敎와 理를 모두 理解하고, 2. 行과 果가 완전히 부합하며, 3. 智와 境이 완전히 和合하고, 4. 空과 有가 唯一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四種의 相應은 만약 敎에서 理를 모른다면 서로 어긋나게 되며 동시에 진취를 못하게 된다. 그리고 行이 果에 부합되지 않으면 修行의 功이 헛되는 것이며, 또 智가 境에 和合하지 못한다면 事物을 照明하는 功이 치우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有와 空이 相即하지 않으면 情見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瑜伽는 네가지 뜻을 구비하고 있으며 그밖에 해석은 敎, 理, 行, 果, 得果 등 五義는 이미 利生과 救物, 그리고 藥病에 相應하는 것이며 그 相應이 원만한 것을 뜻한다고 하였

(58)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第六 p. 296, 下, 『韓國佛教全書』 卷一.

(59) 遁倫 撰, 『瑜伽論記』 卷一上, p. 402 上.

(60) 上同, p. 402 中.

다. 이러한 瑜伽를 修行하는 觀行者를 瑜伽師라고 하며 이러한 瑜伽師의 뜻은 두가지 뜻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그 두가지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師는 調和의 功이 있어야 하고 一般 群徒들을 解放한다는 美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뜻을 지닌 瑜伽師⁽⁶¹⁾는 첫째로 三乘行을 닦는 사람이 聞, 思, 修 등을 차례로 習行하며 어디서나 瑜伽를 分에 따라 만족케 하며 모든 有情들을 고르게 敎化하는 것을 瑜伽師라고 하였다. 둘째로 모든 如來가 瑜伽를 원만히 證得한 것을 相應하여 攝持하고 一切聖弟子들을 고르게 敎化하며 차례로 正行을 수행하는 것을 瑜伽師라고 한다. 이와 같이 瑜伽師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뜻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瑜伽師는 修行만 하는 것이 아니고 衆生을 구제하는 의무와 사명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圓測法師와 遁倫法師의 瑜伽思想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遁倫法師는 圓測法師가引用한 기록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여 圓測法師는 新羅唯識의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圓測法師는 위와 같은 다양한 瑜伽의 수련가운데서도 止觀을 體로 삼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解深密經疏⁽⁶²⁾에

於諸行中 止觀爲體 以奢摩他毗鉢舍那 平等運道 說名瑜伽 於此品中 廣明正觀 瑜伽之義 故名分別瑜伽

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하면 모든 修行가운데서 止觀을 體로 하며 또한 奢摩他와 毗鉢舍那를 평등하게 運道하는 것이 참다운 瑜伽임을 거듭 말하고 있다. 그런데 圓測法師의 瑜伽思想은 어디에 基因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볼 때 最勝子菩薩의 瑜伽師地論釋에 기록된 思想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解深密經疏에 瑜伽釋에 依하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瑜伽釋은 바로 最勝子의 瑜伽師地論釋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圓測의 解深密經疏의 문헌이 最勝子菩薩의 瑜伽師地⁽⁶³⁾論釋의 문헌과 거의 동등하며 사상이 一致되기 때문이다. 아 물론 圓測法師는 瑜伽와 止觀을 일치시켜 同一한 내용임을 밝히고 또 境瑜伽와 行瑜伽, 그리고 果瑜伽는 佛教敎理의 모든 것과 相應하며 內心과 外境을 淨化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智慧와 涅槃 등 聖果를 증득하게 된다는 大義를 밝혀주고 있다.

VI. 圓測法師의 止觀思想

위에서 心識觀과 瑜伽思想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心識은 人間의 번뇌심이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며 또 內心の 眞理性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瑜伽는 곧 止觀과 통하며 內心을 淨化하고 객관계의 인식의 대상을 올바르게 觀察하고 相應하여 그 속의 眞如성과 合一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이제 考察하고자 한 止觀思想은 물론 瑜伽思想과 상통한 바가 있지

(61) 上同.

(62)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296 下.

(63) 最勝子菩薩造, 『瑜伽師地論釋』卷一, p. 883. 下, 『新修大藏經』卷30.

만 그 名稱과 思想은 中國과 韓國에 더욱 잘 알려진 사상들이다.*특히 韓國의 佛敎學에는 止觀이라는 表現으로 그 사상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인물은 圓測法師과 元曉大師라고 할 수 있다. 圓測法師는 唯識學者로서 瑜伽師地論의 영향을 많이 받아 汚染된 人間의 心識을 淨化하는데, 그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止觀思想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圓測의 止觀思想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차례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止觀과 止觀雙運思想

圓測法師는 止觀思想의 목적을 첫째로 心識의 淨化에 바탕을 두고 둘째로 客觀계의 관찰을 통하여 眞理를 깨닫고 智慧의 證得을 실현하는데 두고 있다. 그러나 止觀의 내용과 思想의 영역은 全眞理와 因緣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說明의 폭도 매우 넓게 하고 있다. 法師가 註釋하고 있는 止觀思想의 내용은 十八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물론 眞理의 世界가 無限한 만큼 止觀의 思想도 무한하여 더욱 확대하여 설명될 수 있지만 여러 문헌을 통하여 볼 때 十八項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가장 綜合的이고 合理的인 분류라고 할 수 있다. 그 十八門⁽⁶⁴⁾의 項目을 열거해보면, 1. 分別止觀依住門 2. 止觀所緣差別門 3. 分別能求止觀門 4. 隨順止觀作意門 5. 止觀二道同異門 6. 分別止觀唯識門 7. 修習止觀單覆門 8. 止觀種數差別門 9. 依不依法止觀門 10. 有尋伺等差別門 11. 止舉捨相差別門 12. 知法知義差別門 13. 止觀能攝諸定門 14. 止觀因果作業門 15. 止觀治障差別門 16. 止觀能證菩提門 17. 引發廣大威德門 18. 無餘依滅受門 등이다. 이들 項目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圓測法師는 止觀思想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내용별로 분류하여 놓았다. 法師는 이와 같이 止觀의 觀行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菩薩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되는 十波羅密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十八門다음에 十波羅密을 설하게 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止觀의 수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觀行을 닦는 사람은 반드시 선구적 指導力을 발휘하여 大衆을 구제하고 社會를 淨化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러한 思想은 전체의 敎理觀과 직결한 止觀論으로서 그 止觀思想을 몇가지로 分類할 수 있으나 그 뜻은 相通한다. 止와 觀은 彼此가 不可分離한 관계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먼저 止와 觀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止觀雙運의 思想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圓測法師는 止觀에 대한 正義를 止⁽⁶⁵⁾는 一心이 亂雜하지 않게 함이요, 觀은 如實히 法을 見하는 것이다(止謂一心不亂 觀謂如實見法)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止觀이란 마음의 統一의 의미이며 따라서 萬法의 實相을 올바르게 觀察하는 데 있다. 이러한 止觀思想은 梵語인 奢摩他(samathā)와 毗鉢舍那(vipaśyanā)를 번역한 말이다. 이들 止와 觀은 또 定과 慧로도 바꾸어 表現하기도 한다. 圓測法師에 의하면 奢摩他是 止와 定으로 번역하고, 毗鉢舍那是 觀과 慧로 번역할 수 있다

(64)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六, p. 297, 上, 『韓佛書』 卷一.

(65) 上同, p. 297 中.

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두 名詞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法師는 解深密經疏⁽⁶⁶⁾에

奢摩他是 禪定을 散亂시키고 動搖시키는 모든 번뇌를 對治하고, 毗鉢舍那是 智慧를 顛倒하는 모든 煩惱를 對治한다(奢摩他者 謂能對治諸散動定 毗鉢舍那者 謂能對治諸顛倒慧).

라고 해석하였다. 對治는 곧 淨化를 의미하며 淨化의 對象은 心識을 동요시키고 또 內心の 智慧를 방해하고 가치관을 전도시키는 顛倒心을 淨化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根本顛倒心은 第七末那識에서 발생하며 枝末의인 전도심은 第六意識의 번뇌심을 뜻한다. 이러한 번뇌심을 淨化하는 修行은 禪定을 닦는 것이고 禪定을 닦으면 본래 우리 人間에게 보존된 智慧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말하면 앞에서 고찰한바 있는 阿賴耶識 등 八識은 汚染된 精神界라면 이들 八識이 禪定の 修行에 의하여 淨化되면 汚染識 등이 智慧로 전환되어 모든 진리를 장애없이 관찰하고 또 證得할 수 있다. 圓測法師는 汚染된 心識을 淨化함에 있어 禪定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禪定の 名稱을 三摩呬多와 三摩地, 그리고 三摩鉢底 등 三名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1. 三摩呬多: 이는 勝定地⁽⁶⁷⁾에서 마음을 침체시키는 惛沈과 그리고 마음을 동요시키는 掉舉 등 마음의 작용을 淨化하고 平等心을 능히引出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三摩呬多地는 平等을引發하기 때문에 이를 이름하여 等引地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이 定名은 오직 一切의 번뇌심(有心)을 攝持하는 모든 定에 해당하며 동시에 平等을引發하는 功德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이름인 것이다.

2. 三摩地: 三摩地는 別境가운데의 心數라고 하였다. 別境이란 말은 精神作用 가운데 각각 그 대상이 다르다는 뜻으로 別境心所⁽⁶⁸⁾에는 欲, 勝解, 念, 定, 慧 등 五心所가 있다. 이 五心所 가운데 定과 慧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圓測法師는 이 定慧를 말하여 三摩地라 하였으며 三摩地는 또 等持⁽⁶⁹⁾라 하였다. 等持는 浮沉을 여이는 것을 이름하여 等이라 하고 心識을 攝持하는 것을 持라 하며 一境에 住하도록 하는 것을 等持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三摩鉢底는 等至라 하는데 等の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고 至는 至極을 뜻하며 寂靜이 極處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等至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圓測法師는 또 三昧라는 名稱을 訛略이라고 말하고 있다. 仁王經疏⁽⁷⁰⁾에 의하면

三昧라고 말하는 것은 訛傳된 略稱이다. 正梵音에 의하면 三摩地라고 이름한다. 이를 等持라 하며

(66) 上同.

(67) 上同, 卷八, p. 380 上.

(68) 無著 造, 『顯揚聖教論』 卷第一, p. 480 『新修大藏經』 卷31.

(69)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第八, p. 380. 上.

言等持者 梵音三摩地 此云等持 離沉浮故 名之爲等 持心令住一境. 故名等持. 梵音三摩鉢底 此云等至 等義如前至謂至極 謂彼寂靜至極處故 名爲等至 如是二種皆有漏故. 可破壞故. 名爲世間然此定名.

(70) 圓測 撰, 『仁王經疏』 卷上 末, p. 43. 上, 『韓國佛教全書』 卷一.

等은 惛沉과 掉舉를 여이기 때문이요, 持는 持心하여 一境性에 住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定과 散에 通하고 別境中에 定數를 體로 한다(言三昧者 訛者訛略 依正梵音 名三摩地 此云等持 離於沉掉故名爲等持心令住一境性故 名之爲持 此通定散 即別境中定數爲體).

라고 해석하며 정당한 梵音은 三昧가 아니라 三摩地라고 하였다. 圓測法師은 이와 더불어 三摩鉢底와 三摩咽多地 등 三名으로 분류하여 定을 설명한 예가 많다. 이미 위에서도 고찰한 바 있으나 仁王經疏의 解釋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三摩地는 위에서 살펴 보았으므로 省略하기로 하고 三摩鉢底와 三摩咽多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三摩鉢底는 等至라 번역한다. 等義는 沉掉를 떠나는 뜻이며 至는 至極을 뜻하는 바 이는 寂靜을 極處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2. 三摩咽多地는 等引이라 번역한다. 等의 뜻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引에는 三義가 있으니 三義는 1. 平等能引 2. 引平等 3. 平等引發 등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定에 대한 三名의 내용이 각각 다르며 그 내용의 深度도 서로 다르다고 하였다. 그 三定の 深度를 보면 三摩地는 心數(心所) 가운데의 等持一法은 一切를 通攝하고 有心位에서 心一境性으로서 定散位에 通한다고 하였다. 다음 三摩鉢底는 一切의 有心定과 無心定 등 諸定에 通하는 定體를 뜻한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等引地는 一切의 有心定과 無心定의 모든 功德에 通한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圓測法師의 三定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三昧가 訛略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三昧라는 單語가 여러 經論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 물론 圓測法師은 定을 心學⁽⁷¹⁾이라 하고 般若를 慧學이라 하며 增上忍과 增上慧를 더하는 精神修行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陶練其心の 論理를 鍊金法에 비유하여 설명하며 初地에서 二縛을 정화하고 계속하여 後地の 보살수행에서도 鍊金法과 같이 心識을 陶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鍊金法에는 三義가 있다고 하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除垢陶練이니 金性가운데서 점점 塵中の 細垢를 除去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는 攝受陶練이니 鄭重히 鎖鍊하여 陶練하는 것을 뜻한다.

세째 調柔陶練⁽⁷²⁾이니 鎖鍊를 마치고 다시 瑕玞 등의 汚穢를 細密하게 練治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陶練의 三義로서 心識淨化의 비유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陶練師가 金銀에 대하여 一切의 垢穢를 棄捨하고 調柔하며 隨順하도록 하여 마음에 들게 만들어 내듯이 瑜伽行을 勤勉하게 修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心觀行은 心識으로부터 나타나는 貪, 瞋, 痴 등 一切의 垢穢를 棄背하고 하고자하는 마음에 따라 安立하고 奢摩他品과 毗鉢舍那品과 能히 和合하여 轉動함이 없이 所樂에 따라 修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陶練師가 金銀의 汚穢를 練治

(71)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八, p. 400 中.

(72) 上同, 卷七, p. 367 中.

하는 金性を 마음에 들게 만들어 내듯이 瑜伽行者도 止觀을 통하여 心識의 垢穢 등 모든 煩惱를 淨化하여 心性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比喻는 매우 現實性있는 비유인 것이다. 따라서 圓測法師는 止觀의 修行을 매우 중요시 한 禪修行者였다. 記錄에 의하면

奢摩他⁽⁷³⁾와 毗鉢舍那是 菩薩의 修行가운데 止觀이 主가 된다. 法華에 이르기를 佛陀는 스스로 大乘에 住하시고, 證得한 法인 定慧力으로 莊嚴을 하여 衆生을 제도하셨다(修奢摩他毗鉢舍那者 菩薩行中止觀爲主故 法華云 佛自住大乘 如其所得法 定慧力莊嚴以此度衆生).

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大乘佛敎에는 여러가지 菩薩의 修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수행이 止觀의 수행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止와 觀의 수행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圓測法師는 止觀修行에 대하여

止觀修行⁽⁷⁴⁾은 二輪의 車와 같이 해야 한다. 바퀴 하나는 強하고 하나가 弱하면 安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智와 定도 不平等하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菩薩은 止觀을 평등하게 雙修해야 한다(智度論 第十七云, 如車二輪 一強二弱 則不安隱 智定不等 亦復如是 是故菩薩雙修止觀).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元曉大師도 起信論疏⁽⁷⁵⁾에

定은 止라 이름하며 慧는 觀이라 이름한다. 實에 따르면 定은 止觀에 通하고 慧도 止觀에 통한다. 止觀은 六度 가운데에 있는 것으로서 定慧를 合修하여야 하며 이 定慧를 합쳐서 止觀門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元曉大師의 止觀思想도 圓測法師의 思想과 통하는 바가 있다. 元曉大師는 또 止觀雙運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起信論疏⁽⁷⁶⁾에

止觀二行은 必히 相成하는 것이 마치 鳥類의 兩翼과 같고 또 二輪의 車와 같다. 二輪이 不具하면 運載의 能力이 없는 것이며 一翼이 만약 闕하면 翔空의 勢力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止와 觀도 서로 具足하지 못하면 菩提의 道에 能히 證入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元曉大師의 止觀思想은 圓測法師의 사상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에 의하여 볼 때 新羅時代의 止觀思想은 모든 新羅學者들의 공통된 理論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圓測法師는 止觀의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此際에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止觀과 認識의 對象

위에서 止觀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았다. 즉 止는 心識의 煩惱를 淨化하여 智慧를 發生시키는 수련이고, 觀은 止와 동시에 나타나는 智慧로서 眞理를 올바로 관찰하는 心力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觀은 반드시 인식의 대상을 요하며 그 認識의 대상은 最終的으로는 眞如가 되지만 그

(73) 上同, 卷六, p. 297 中.

(74) 上同.

(75) 元曉 撰, 『起信論疏』 卷下, p. 221. 下, 『新修藏經』 卷44.

(76) 上同, p. 225 中.

眞如를 완전히 證得하기 이전에는 여러가지 修行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修行의 내용여하에 따라 證得의 내용 즉 認識의 對像이 여러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眼識은 色境을 대상으로 하여 了別하지만 그것은 보통 染汚의 心識이기 때문에 相對的인 認識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染汚의 心識은 그 色境의 眞理와 合一하는 能力이 없으며 동시에 그 色境의 性を 완전히 理解하지 못하고 겉모습인 相만 인식하고 말기 때문이다. 止觀思想은 이러한 相對的인 인식을 초월하여 絕對的인 認識을 요하며 절대적인 인식은 認識의 대상인 相을 포함하여 性까지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心一境性이라 말하며 또한 證得이라 하며 悟道 및 正覺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러한 證得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證得은 一時에 달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으로 證得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部分的으로 내용을 깨달아 들어가는 것이 凡夫의 修行이며 또한 止觀의 修練이다. 이를 漸悟라 하며 그 漸悟의 내용을 여러가지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圓測法師는 止觀을 통하여 인식하는 대상을 所緣境⁽⁷⁷⁾이라고 이름하며 또 所緣境의 境을 境界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境界에는 體가 있고 體는 또 性の 뜻이 있으며 性體上에 事體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대상에 대하여 종합해서 말하면 境事라고 한다. 境事を 관찰하는 心識은 인식의 主體로서 能히 所緣境에 대하여 인식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心識이 만약 染汚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 境事が 올바르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染汚識을 淨化하는 止觀을 통하여 境事の 實性を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境地를 證得이라 하고 心一境性이라 한다. 圓測法師는 이러한 證得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四種의 方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四種⁽⁷⁸⁾은 1. 遍滿所緣 2. 淨行所緣 3. 善巧所緣 4. 淨戒所緣을 말하며 이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遍滿所緣: 遍滿所緣은 또 다시 네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게 된다. 그 네가지란 가. 有分別影像所緣, 나. 無分別影像所緣, 다. 事邊際所緣, 라. 所作成就所緣 등 네가지 所緣을 말한다. 이들 四所緣의 내용을 차례로 알아보기로 한다.

가. 有分別影像所緣은 勝解의 作意(警覺)가 있는 止(奢摩他)와 觀(毗鉢舍那)이 인식하는 境界(所緣境界)를 말한다. 勝解作意는 아직도 分別이 있는 世間作意를 뜻한다.

나. 無分別影像所緣은 眞實의 作意가 있는 止와 觀이 반연하는 所緣境界를 뜻한다. 眞實作意는 한결같이 出世間的이고 止觀修行後에 證得한 作意를 뜻한다.

다. 事邊際所緣은 一切法이 盡所有性이며, 如所有性임을 밝히는 것이다. 盡所有性은 色, 受, 想, 行, 識 등 五蘊과 六根, 六境 등 十二處와 六根, 六境, 六識 등 十八界를 말한다. 이들 五蘊과 十二處와 十八界는 人間の 精神界와 肉體, 그리고 객관계의 모든 物質界를 요약하여 분석한

(77)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298 中 『韓國佛全教書』卷一.

(78) 上同, 下.

것으로서 그 性質을 모두 깨닫고 理解하는 것을 盡所有性이라 한다. 다음 如所有性은 苦諦, 集諦, 滅諦, 道諦 등 四聖諦의 十六行相과 眞如와 一切行無常과 一切行苦와 一切法無我和 涅槃靜과 空과 無願과 無相 등을 境界로 하여 了知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이 事邊際所緣은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여 精神界와 物質界의 내용과 眞理를 간파하는 止觀의 대상을 말한다.

라. 所作成就所緣은 곧 轉依를 뜻한다. 轉依란 顛倒가 없는 認識을 뜻하며 이러한 證悟가 항상 顯現하는 것을 말한다. 顛倒없는 認識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異說이 있으나 크게 나누면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眞如性에 해당하는 阿摩羅識說⁽⁷⁹⁾이다. 眞諦三藏은 人間的 本性은 곧 阿摩羅識이며 이 識은 無垢識이라 번역되는데 無垢識은 煩惱가 없는 心識을 의미하며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顛倒없이 眞理를 觀察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眞如性과 통하며 眞如에도 所緣義와 能緣義가 있어 所緣境은 眞如 및 實際의 眞理를 말하고 能緣識은 無垢識이라고 하였다. 그러하기 때문에 無垢識을 如來無垢識이라 하며 이 識의 境界는 淨無漏界이며 一切의 障礙를 해탈한 大圓鏡智⁽⁸⁰⁾가 상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阿摩羅識을 眞如本覺⁽⁸¹⁾이라 하며 이것이 在纏하면 如來藏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現在 出纏의 阿摩羅識을 論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轉依라고도 이름한다. 轉依는 곧 轉識得智와 통하는 말이며 轉識得智란 말은 染汚의 心識을 轉換하여 淸淨한 智慧를 證得한다는 뜻으로서 唯識學의 大義이며 止觀의 목적이기도 하다.

다음은 八識이 淨化되어 나타나는 四智說이다. 四智는 菩提의 體이기도 하며 第九 阿摩羅識도 第八識의 淨分⁽⁸²⁾이라는 말과 같이 四智와 서로 통하는 내용들이다. 그렇다면 이들 四智는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認識하고 있는가를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四智는 八識이 淨化된 것이며 이들 四智에도 다음과 같은 所緣의 대상이 있다.

1) 五識과 成所作智: 五識은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등을 말하며 이 心識들이 淨化되면 成所作智로 전환된다. 이들 五識은 有漏識으로 所緣할 때는 色境 등 오직 一境만을 인식하지만 만약 有漏五識이 淨化되면 成所作智가 되어 色聲香味觸 등 全五境을 一時에 通緣하며 또한 過去 現在 未來 등 三世의 경지를 證得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意識과 妙觀察智: 有漏意識⁽⁸³⁾은 十八界만을 遍緣하지만 만약 有漏意識이 止觀의 修行에 의하여 妙觀察智를 증득하고 轉依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一切法의 自相과 共相을 障礙없이 緣하게 된다고 하였다.

3) 末那識과 平等性智: 有漏의 末那識은 오직 第八 阿賴耶識의 見分만을 緣하지만 만약 有漏

(79)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三, p. 217 下(上同).

(80) 上同, p. 218 上.

(81) 圓測 撰, 『仁王經疏』 卷中本, p. 80 中(上同).

(82) 上同 下.

(83)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三, p. 219.

의 末那識이 止觀을 통하여 平等性智로 轉依되면 我執과 法執을 야기하지 않고 第八의 淨識을 緣하게 된다. 다시말하면 無漏의 末那가 곧 平等性智이며 平等性智는 眞如를 境界를 하여 緣하며 동시에 一切法을 平等하게 緣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平等性智는 眞諦와 俗諦의 境界를 동시에 遍緣한다고 하며 여기서 모든 有情이 自他가 平等하다는 眞理觀이 확립하게 된다고 하였다.

4) 阿賴耶識과 大圓鏡智 : 有漏의 阿賴耶識은 精神과 物質을 변화시킬 수 있는 根本이 된다고 해서 一名 異熟識이라 하며 이 識이 淨化되면 大圓鏡智로 전환될 수 있다. 大圓鏡智는 無漏第八識으로서 항상 眞如를 境界로 하여 緣하며 이는 無分別智로서 後得智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大圓鏡智는 如來의 鏡智로서 여기에는 一切의 境界와 心識 등의 衆像이 現顯하며 이러한 一切境에 대해서 추호도 愚迷하지 않는 眞理를 證得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鏡智는 결정코 모든 無漏種子와 無漏의 身土 등 모든 影像을 緣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遍滿所緣에 대한 四種의 所緣을 분류하여 살펴 보았다. 遍滿所緣에 대해서는 通과 別의 論說이 있다. 通說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 본 四種의 所緣境事가 一切에 遍行한다는 것을 過去, 現在, 未來의 正覺者들이 공통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를 遍滿所緣이라 이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所緣은 毗鉢舍那品⁽⁸⁴⁾과 奢摩他品, 그리고 一切事와 眞實事 및 因果의 相屬事에 두루 반연하기 때문에 遍滿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주장이다. 이것이 通說이며 이 通說이 正理에 契合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別說은 여러 敎派의 주장을 말한 것으로 여기서는 省略하기로 한다.

2. 淨行所緣 : 淨行所緣⁽⁸⁵⁾도 遍滿所緣과 같이 五種의 내용으로 분류하여 說明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1) 貪行이 많은 자는 不淨境을 緣하여 觀察할 것. 2) 瞋行이 많은 자는 慈悲境을 緣할 것. 3) 痴行이 많은 자는 衆緣이 和合하여 生起하는 勝性の 모든 緣起境을 緣할 것. 4) 憍慢行이 많은 자는 境界의 差別境을 緣할 것. 5) 尋伺行이 많은 자는 出入의 息念境을 緣할 것 등이다. 이러한 五種의 觀察은 止觀思想의 不淨觀, 慈悲觀, 緣起觀, 界差別觀, 入出息觀⁽⁸⁶⁾등의 名詞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3. 善巧所緣 : 善巧所緣은 蘊善巧, 界善巧, 處善巧, 緣起善巧, 處非處善巧 등 五種의 善巧法을 말한다. 이들 내용은 五蘊, 十二處, 十八界 등이 因緣法에 의하여 生起하는 것이지만 不平等한 것이 아니며 항상 平等한 眞理위에 緣起되어지는 것을 止觀을 통하여 觀察함을 뜻한다.

4. 淨戒所緣 : 淨戒所緣은 世間道와 出世間道を 말하며 世間道에서는 모든 번뇌를 制伏받고 出世間道에서는 모든 번뇌를 영원히 단멸하며 眞如를 證得함을 뜻한다.

圓測法師은 이상과 같이 止觀의 所緣을 네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와

(84) 上同, 卷六, p. 299 中.

(85) 上同.

(86) 上同.

같이 所緣이란 인식의 대상을 말하며 그 인식의 대상을 能取와 所取의 相對로 인식하면 그것은 凡夫的인 인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能取와 所取의 相對性⁽⁸⁷⁾이 없이 二取를 초월한 경지에서 인식하면 이는 곧 絕對의 境界이며 止觀의 경지라고 하였다. 圓測法師는 이러한 所緣에 대해서 唯識學의 四分說로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마음(眼識)이 빛깔(色境)을 볼 적에 그 마음에는 認識主와 認識의 對象으로 분류되어 相對의으로 認識하는 凡夫의 精神作用이 있다고 한다. 그 認識主를 見分⁽⁸⁸⁾이라 하고 인식의 대상은 相分이라 한다. 이와 같은 相分(影像)과 見分(照見)을 圓測法師는 能取와 所取로 표현하고 있으며 만약 相分과 見分이 없다면 곧 能取와 所取도 없어지며 동시에 無所得의 智慧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例文을 들면 解深密經疏⁽⁸⁹⁾에

若時菩薩 於所緣境 智都無所得 不取種種戲論相故 有義 此智二分俱無 說無所取能取相故 有義 此智相見俱有 帶彼相起 名緣彼故 若無見分 應不能緣 寧可說爲緣眞如智

라고 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들 내용은 見分을 能緣으로 보고 相分을 所緣으로 하여 能取와 所取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이들 能取와 所取가 없는 智慧는 眞如를 緣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智慧에는 見만 있고 相이 없으면 相을 取할 수 없고 또 見만만 있게 되면 곧 分別이 없으며 따라서 能取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相分이 없다고 하더라도 眞如相은 帶하는 것이며 眞如相에서 離脫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마치 自證分이 見分을 緣할 때 不變하면서 緣하는 證得을 얻게 된 것과 같다. 이와 반대로 變하면서 緣하는 것은 곧 親證이 아니며 이는 後得智로서 分別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止觀을 통하여 聖智를 증득하여야 事物의 眞如를 증득하게 되고 境界를 能히 觀照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九種心住와 四種毗鉢舍那

圓測法師는 止觀을 통하여 첫째로 精神이 安定되고 安定된 위에 智慧를 나투어 人間을 비롯하여 객관계의 事物까지도 그 眞實性을 觀察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에서 고찰한 止觀의 所緣關係를 좀 더 細分化하여 止觀思想의 要諦를 밝혀 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살펴 보고자 하는 九種心住와 四種毗鉢舍那이다. 圓測法師는 瑜伽師地論의 止觀思想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云何止⁽⁹⁰⁾ 謂九種心住 云何觀 謂三事觀 或四行觀 或六事差別觀

이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여 九種心住는 止에 해당하고 四種毗鉢舍那是 곧 四行觀으로서 觀에

(87) 圓測 撰, 『解深密經疏』 卷六, p. 300 下.

(88) 上同.

(89) 上同 卷六, p. 300 下.

(90) 上同, p. 309 中.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瑜伽師地論의 聲聞地品⁽⁹¹⁾에

復次如是心一境性 或是奢摩他品 或是毗鉢舍那品 若於九種心住中 心一境性 是名奢摩他品 若於四種慧行中 心一境性 是名毗鉢舍那品

이라고 한 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즉 心一境性은 止와 觀에 모두 통하는 말이며 止는 九種心住로 분류되고 觀은 四種의 慧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止觀思想은 元曉大師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서 元曉大師는 大乘起信論⁽⁹²⁾의 止觀說을 주석할 때 대폭 引用하고 있다. 그만큼 止觀을論할 때 九種心住와 四種毗鉢舍那是 매우 중요한 사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이 九種心住와 四種毗鉢舍那의 내용을 간추려 살펴 보기로 한다.

가. 九種心住 : 圓測法師는 止(奢摩他)는 心識으로 하여금 一境에 住하게 하는 것이며 法義境에 대해서 能히 正思惟하여 聞思二慧가 相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內心이 作意思惟를 相續시키며 그리고 能緣心을 攝하여 定內에 있게 하는 것을 內心이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內心은 心識을 內部的 所緣境界와 外部的 所緣境界에서 流散하지 않도록 繫屬⁽⁹³⁾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곧 定力이라고 하였다. 正心이 相續하는 作意思惟와 聞思가 相應하는 正行이 모두 安住하기 때문에 身輕安과 心輕安이 惹起하게 된다는 것이다. 身輕安과 心輕安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이 輕快하고 安定된다는 말이며 이는 定力에 의하여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圓測法師의 輕安思想은 解深密經⁽⁹⁴⁾卷三에

復即於此 能思惟心 內心相續 作意思惟 如是正行 多安住故 起身輕安 及心輕安 是名奢摩他

라고 記錄한 것에서 영향받았다고 볼 수 있다. 圓測法師는 여기서 進一步하여 九種心住와 연결시켜 止定の 思想을 윤곽하게 하고 있다. 그 例文⁽⁹⁵⁾을 보면

身輕安과 心輕安을 惹起하는 것은 安住를 나타내는 것이며 內住 등 九正行을 具足하였기 때문에 身輕安과 心輕安을 야기하게 된다. 身輕安은 四大에 의하여 造作된 輕安의 觸을 말하고 心輕安은 善十一心所 가운데 輕安心所에 해당한다. 그런데 無性論에 의하면 輕快하되 安隱하며 堪能性이 있는 것을 輕安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身心의 輕安은 奢摩他를 立하는 것이다.

라고 한 데서 輕安의 내용을 잘 읽을 수 있다. 圓測法師는 九種心住를 九正行이라 표현하여 內心安住正奢摩他라고 이름하였다. 그렇다면 九種心住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九種心住는 1. 內攝心住, 2. 等住, 3. 安住, 4. 近住, 5. 調順, 6. 寂靜, 7. 最極寂靜, 8. 專

(91) 彌勒說, 『瑜伽師地論』卷30, p. 450. 下, 『新修大藏經』卷30.

(92) 元曉撰, 『起信論疏』卷下, p. 727. 上, 『韓國佛教全書』卷一.

(93)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302 中(上同).

(94) 玄奘譯, 『解深密經』, p. 46.

(95)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302 下(上同).

住一趣, 9. 平等攝持 등을 말한다. 이들 九種心住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內攝心住는 마음을 안에서 攝心하여 住하게 하며 外部의 攀緣을 攝持하고 內面에는 散亂을 멀리 여이게 하며 최초로 마음을 繫屬시키는 것이다.

2. 等住는 최초로 魔動心を 繫縛하고 所緣境에 대하여 계속 微細한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도록 하는 定心を 말한다.

3. 安住는 비록 定을 닦아 마음이 安定되었다고 하더라도 外部쪽으로 馳散하고 尋求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를 攝하여 內心에 安住하도록 하는 것이다.

4. 近住는 처음부터 마음으로 하여금, 바깥쪽으로 馳散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親近하게 住하도록 한다.

5. 調順은 과거부터 色等法에 散亂心を 야기하여 過患想을 增長하는 힘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調伏받아 외부로 流散하지 않도록 한다.

6. 寂靜은 擾動하는 마음과 散亂하는 마음 그리고 잘못 깨닫는 惡覺 등 지말적인 번뇌(隨煩惱)까지도 攝伏하고 流散하지 못하게 하는 定을 말한다.

7. 最極寂靜은 失念과 散亂등이 現行하는 마음을 즉각 制伏하고 다시는 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을 말한다.

8. 專注一趣는 精勤과 加行을 간단없이 하고, 결함이 없이 殊勝한 定에 安住하도록 하는 것이다.

9. 平等攝持는 잘 修習하여 왔기 때문에 加行에 緣由하지 않고 또 功用도 멀리 하며 오직 定心만 相續할 뿐이며 散亂한 마음은 추호도 없는 경지를 말한다.

이상으로 九種心住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았다. 이들 내용은 最初의 定心과 最後의 定心 등 禪定을 닦는 차례와 내용을 설명한 것이며 그 定心の 如何에 따라 心識의 煩惱도 淨化되는 과정에 麤細가 나타나면서 결국 根本煩惱까지도 淨화된다는 말이다.

나. 四種毗鉢舍那: 네가지 毗鉢舍那란 네가지 觀을 말한다. 觀은 五種의 異名⁽⁹⁶⁾이 있다. 圓測法師에 의하면 忍, 樂, 慧, 見, 觀 등이 있으며 忍은 忍解, 樂은 受樂, 慧는 分別, 見은 推求, 觀은 觀察 등으로 解釋하고 있다. 이상은 顯揚論의 五觀說이지만 瑜伽論에는 慧, 智, 見, 明, 觀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표현으로 慮라고도 하며 止를 靜이라 하며 觀을 慮라 한다. 圓測法師은 이들 靜慮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靜⁽⁹⁷⁾은 寂靜, 等引, 一所緣繫念이고 慮는 籌慮, 遍觀, 正審思慮등의 뜻이 있다고 하였다.

四種毗鉢舍那는 內心の 奢摩他에 의지하여 모든 法들을 바르게 思擇(能正思擇)하고, 가장 궁극적인 思擇(最極思擇)을 하며, 두루 두루 尋思(周遍尋思)하고, 또 두루 두루 伺察(周遍伺察)하는

(96) 上同, p. 303 下.

(97) 上同, p. 310 中.

것 등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들 四觀은 觀察하는 대상(所觀境)을 상대로 하여 智慧롭게 證得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觀과 慮에 해당하는 四種毗鉢舍那의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한다.

毗鉢舍那是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觀, 慧, 智 등 여러 異名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圓測法師은 四種毗鉢舍那를 四種觀⁽⁹⁸⁾ 또는 四慧行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서로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法師은 瑜伽師地論의 四種觀思想⁽⁹⁹⁾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 비교해본 결과 알 수 있었다. 그는 解深密經疏⁽¹⁰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1. 能正思擇 : 이는 觀行이 반영하고 淨行이 반영하는 境界(淨行所緣境界)와 善巧가 반영하는 境界(善巧所緣境界)와 그리고 淨戒가 반영하는 境界(淨戒所緣境界) 등에 대해서 能히 眞正하게 思擇하는 것을 말한다. 思擇은 諸法을 簡擇한다는 뜻이며 또한 正思惟하여 選擇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精神界와 物質界를 총망라하여 모든 진리를 올바르게 관찰하여 眞理와 非眞理를 가려내는 慧眼을 말한다. 이를 盡所有性이라 한다. 盡所有性은 五蘊, 十二處, 十八界, 四聖諦 등 所知事에 대해서 觀行者가 원만하게 觀察함을 뜻한다.

2. 最極思擇 : 이는 止觀을 수행하는 觀行者가 인식의 대상(所緣境界)에 대해서 그 대상의 眞如性を 궁극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思擇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如所有性을 最極思擇한다고도 말한다. 圓測法師은 如所有性⁽¹⁰¹⁾에 대한 해석을 所緣의 眞實性이며 眞如性 그리고 四道理性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眞實性을 관찰하는 것을 最極思擇이라고 한다.

3. 周遍尋思 : 이는 所緣境界에 대하여 慧行을 구축하게 하며 分別作意로서 그 相狀을 取하는 등 두루 尋思하는 것을 뜻한다.

4. 周遍伺察 : 이는 所緣境에 대하여 진실하게 그리고 審細하게 두루 伺察하는 것을 뜻한다.

이상과 같이 毘鉢舍那是 四種의 觀行으로 분류되며 동시에 인식의 대상인 所緣境界의 眞實性에 대하여 尋思하고 伺察하는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四種觀行은 相觀, 尋求觀, 伺察觀⁽¹⁰²⁾ 등 三事觀이라는 다른 말로 바꾸어 그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다. 또 義所緣觀, 事所緣觀, 相所緣觀, 品所緣觀, 時所緣觀, 道理所緣觀 등 六事差別所緣觀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들의 觀은 모두가 인식의 대상을 眞理롭게 認識하고 또 眞如性을 깨닫는 데 공통점을 갖고 있다. 圓測法師은 위에서 말한 止와 더불어 함께 作用하는 것을 心一境性이라고 하였다. 心一境性은 止觀이 所緣境에 대해서 동시에 轉生한다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世俗唯識과 勝義唯識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즉 世俗唯識에 있어서는 단순히 心識과 不離한다는 뜻에서 心一境이라 이름하고 勝義唯識

(98) 上同, p. 303 中.

(99) 彌勒說, 『瑜伽師地論』卷30, p. 451, 中, 『新修大藏經』卷30.

(100) 圓測撰, 『解深密經疏』卷六 p. 303, 中.

(101) 上同, p. 299 下.

(102) 上同, p. 309 下.

에서는 一切의 法이 唯一한 眞性이라는 경지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心一境性이라고 名稱을 붙인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心境을 別觀하면 止觀이 不俱한 것이고, 만약 心境이 合緣되면 이는 止觀俱轉의 경지라고 이름한다는 것이다.

VII. 結 論

本論에서 圓測法師의 傳記와 心識說의 概要 그리고 心識과 肉體와의 관계를 먼저 고찰한 다음에 瑜伽와 止觀 등의 思想을 고찰하였다. 그 理由는 止觀을 修行하는 사람이 自身の 精神界와 그리고 精神과 肉體와의 관계를 모르면 止觀修行에 뚜렷한 目的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止觀은 곧 染汚의 心識을 淨化하고 나아가서 肉體도 安定하는 目的이 있는 바 그것을 圓測法師는 心輕安과 身輕安이라고 이름하였다. 現實的으로 볼 때 止觀의 修行은 心輕安과 身輕安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 目的이라고 볼 수 있으며 圓測法師는 이러한 止觀思想을 論理化하여 現實生活와 직결시키는 禪을 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圓測法師는 前識과 第六意識 그리고 第七末那識에서 발생하는 煩惱는 智慧를 障礙하고 安定을 破壞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이를 淨化하려면 오직 止觀 뿐이라는 思想을 강조한 것이다. 止觀修行을 통하여 貪, 瞋, 痴 등 煩惱를 淨化하면 결국 八識은 四智로 轉換되며 菩提와 涅槃이 證得된다는 轉識得智의 理論은 唯識學者의인 止觀思想을 전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止觀修行은 곧 瑜伽修行과 동일한 것이라는 見解는 瑜伽師地論과 解深密經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見解는 오직 唯識學者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瑜伽師라는 名稱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唯識觀을 갖고 瑜伽行을 닦는 修行을 提示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止觀과 瑜伽의 共通點은 止觀은 遍滿所緣, 淨行所緣, 善巧所緣, 淨戒所緣 등 所緣境을 관하여 그 眞如性和 合一하는 것이었고 瑜伽에서는 境, 行, 果 등을 所緣境으로 하여 眞如性和 合一하는 것 등의 思想이 서로 같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相應하는 境界에 止觀이 雙運하고 雙轉하는 경지에서만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내용에는 能緣의 無垢識과 所緣의 無漏界가 平等하게 顯現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圓測法師의 止觀思想은 自身과 外部의 一切法을 대상으로 하여 眞理롭게 관찰하고 萬相에 偏見과 執着을 버리고 自相과 本性을 함께 證得하여 涅槃을 實現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